

# 이재명, 호남서 이틀간 중앙위원 표심 공략...우위 굳히기

### 민주 전대 컷오프 사흘 앞두고 97그룹 4인방·설훈·김민석도 지방·수도권서 '일대일 설득전'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컷오프가 초읽기에 들어 가면서 당락을 좌우할 '400명 중앙위원' 표심을 사기 위한 '일대일 설득전'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컷오프 통과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가운데 나머지 2장의 본선행 티켓을 둘러싼

여타 주자들의 쟁탈전은 컷오프 직전까지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상임고문은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전북에서 중앙위원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등 '우위 굳히기' 전략에 주력했다.

이 고문은 지난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김해 봉하마을 참배에 이어 순천(23일)을 거쳐 목포·광주·전주(24일)로 이어지는 2박 3일간의 영호남 일정을 빼듯하게 소화했다. 이른바 '아재명(아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세론'에 여전히 힘이 실리지만, 압도적 표차에 의한 1위를 위한 강행군으로 풀이된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유능하고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당의 뒷발 밟심에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평화 인권 자유 연대의 광주 정신이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치 위기 그리고 민생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고문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순천을 방문해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장들과 만찬을 한 뒤 목포에서 1박을 하고 전남 서부권 자치단체장들과 조찬을 함께 했다.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차담회를 가진 뒤 광주 5개 구청장과 나주시장, 화순·담양·함평군수 등 전남 중부권 자치단체장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차담회를 갖는 등 강행군을 펼쳤다.

이 고문은 이날 말월동 묘역 참배 후에는 전북으로 이동해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자치단체장 등도 만났다.

이 고문과 경쟁하는 '양강양박'(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으로 불리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 4인방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대를 저인망식으로 훑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대구와 충청, 강훈식 의원은 부산·울산·경남을 돌았고, 박용진·박주민 의원은 서울·경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등 '최대 표밭'인 수도

권을 집중했다.

강병원 의원의 '컷오프 전 단일화 약속' 제언이 사실상 무산되기는 했지만, 97그룹 주자들은 금명간 '호프 미팅' 방식의 회동을 통해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고 나선 5선 중진 설훈 의원과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인 김민석 의원도 주말 내내 지방에 머물렀다. 후발 주자인 이동화 전 최고위원 역시 중앙위원 일대일 설득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1차 관문인 컷오프를 실시, 총 8명의 당 대표 예비후보들을 3명으로 압축해 본경선을 치른다. 컷오프 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70%·국민 여론조사 30%'다.

/최권일·오광록 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24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역문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업무 중복 우려 신활력추진본부 1개팀 축소

### 민선 8기 광주시 첫 조직개편안 진통 끝 시의회 상임위 통과

민선 8기 광주시 첫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광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수정 발의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환경생태국 명칭을 기후 위기 대응 중요성을 담아 기후환경국으로 바꾸고, 신설되는 신활력추진

본부에 업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개팀을 축소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 추진을 주도할 신활력추진본부와 관련해 시의회, 시민단체 등 문제 제기로 부각된 쟁점도 조율했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문화체육실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도시관광과는 무등산·영산강·황룡강 등 환경생태, 도시재생, 경제, 산업과 관광 기능을 연계한다는 개편 취지에 따라 신활력추진

본부 아래 둔다.

신활력추진본부, 광주전략추진단, 기획조정실 간 기획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시 전체 기획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다른 기구에서는 각자 사무와 관련한 기획만 맡기로 영역을 한정했다.

청년정책관을 행정부시장 산하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청년 정책이 취업, 창업 등 일자리와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문화경제부시장 소속으로 결정했다. 조직 개편안은 2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시는 확정된 개편안에 따른 민선 8기 첫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이병훈 '문화재정책연구원 법인화'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 국회의원은 24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등 24개의 기관과 '문화기본법'에 따른 '한



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있으며, 이 연구기관들은 법정법인으로서 국가예산의 투입으로 각 부처의 정책 개발과 지원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단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국내 유일의 '문화재정책연구기관'이지만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개별법률에 설립근거를 가지는 법정법인인 정부정책연구기관과는 달리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운영과 연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희재 '코로나 사망자 소득 하위 10%가 상위 10%의 두배'

소득 하위 10%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상위 10%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초 발병일인 2020년 1월 2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직장 가입자는 약 48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일 이내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체 코로나19 의료기관 내원환자의 0.02%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자료 분석의 한계로 직장가입자만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내원환자 및 30일 이내 사망자 현황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실제 코로나19 환자 및 사망자수는 차이가 존재한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10%인 1분위 코로나19 내원환자의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소득 상위 10%(10분위)의 93명 대비 2.14배



수준이었다. 소득 2분위(하위 10~20%)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23명, 3분위(20~30%)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역시 다른 소득분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았다.

코로나19 내원환자 10만명 당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분위가 44.3명으로 10분위(19.2명) 대비 2.3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내원환자 10만명 당 사망자 수(20.2명) 대비로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김희재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코로나19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은 채, 국가재난 상황을 알아서 극복하라는 식의 '각자도생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 천  
H. 010-3605-5000

##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